

임박(臨迫)과 필연(必然) 사이, 어린양의 시계 ⌚

I. 서론 😊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계 1:1)은 세 가지 축으로 전체 책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필연성(“반드시”), 임박성(“곧/속히”), 계시의 사슬(성부→성자→천사→요한→종들)입니다. 질문하신 핵심은 (1)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2) 구약·신약의 어떤 예언들과 맞물리는가, (3)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표현이 성자 하나님의 전지(全知)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입니다. 아래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구속사적·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II. 본문 (KJB +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

KJB (Rev 1: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unto him**, to shew unto his servants **things which must shortly come to pass**; and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unto his servant John.*

흠정역(마제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사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표적으로 알게 하셨더라.

III. 문맥 배경 🧭

계 1:1–3은 책 전체의 서문입니다. 동일 표현이 책의 결미에서도 반복됩니다(“반드시 속히 될 일들”, 계 22:6). 또한 1:19은 구조를 제시합니다: “네가 본 것들(1장), 있는 것들(2–3장), 이후에 있을 것들(4–22장)”. 곧 1:1의 문구는 요한계시록 전체(특히 4장 이후의 미래 사건)를 포괄하는 표제어입니다.

IV. 원어 분석 (원어–KJB 단어 병기) abc

- “반드시”(δεῖ, *dei*) → **must**: 하나님의 작정·언약에 따른 신적 필연성(막 14:49, 눅 24:44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와 같은 계열).

- “곧/속히”(ἐν τάχει, *en tachei*) → **shortly**: 시간적으로 임박(soon)일 뿐 아니라, 개시되면 빠르게(신속·지체함없이) 진행됨(suddenly/with speed)의 뉘앙스도 내포(눅 18:8 “속히”, 계 22:6).
- “주셨다”(ἔδωκεν, *edōken*) → **gave**: 위임·수여의 의미(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시 2:8 “내가 주리니”).
- “표적으로 알게 하셨다”(ἐσήμανεν, *sēmainen*) → **signified**: 문자 그대로 “표지·상징을 통해 알리다”(요 12:33; 21:19의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곧 상징(시각적 표징)을 통한 계시 방식.

V. 성경 문법 분석

1. 필연성(**must**): 성부의 작정과 성자에게 넘겨진 왕권(시 2편, 단 7장)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막 14:49; 행 17:3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 받고...”).
2. 임박성(**shortly**): 하나님의 시간에서 임박(벰후 3:8), 시작되면 신속히 전개되는 성격(“내가 속히 오리라”, 계 22:7, 12, 20).
3. 상징적 전달(**signified**): 계시는 상징(표적)을 수단으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됩니다(계 17:1; 19:9–10; 22:8–9).

VI. 본문의 문맥적 해석

1)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예언적 내용을 가리킵니다(계 22:6 동일표현). 핵심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늘 보좌(왕좌)의 법정 개시와 어린양의 두루마리 수여(4–5장)
- 인·나팔·대접 심판의 급속 전개(6–16장)
- 짐승 체제와 거짓 대언자, 큰 바빌론의 심판(13–18장)
-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19–20:6; 사 11장, 속 14장 상응)
-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새 예루살렘(20:11–22:5; 사 65–66장 상응)

2) “곧(속히)”의 두 겹 의미

- 임박성: 교회 시대 전반에 걸친 상시적 대비 명령(약 5:8–9; 빌 4:5; 계 1:3 “때가 가까움”).
- 신속성: 개시되면 연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짐(눅 18:8; 계 22:6). 따라서 **A.D. 1세기**만을 가리키는 축소(완전 과거주의)도, 완전 연기도 배제하고, 이미–아직(**already but not yet**)의 긴장을 유지합니다.

3)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다”의 의미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요 21:17)하시나, 구속사에서의 경륜적(경제적) 질서 안에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아들께서 종들에게 전하심이 성경 일관의 문법입니다(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시

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요 17:7–8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특히 계시록은 대제사장적-왕적 위임의 문맥에서 읽어야 합니다. 계 5장에서 어린양이 책을 받으심(수여·위임)은 계 1:1의 “주셨다”의 내러티브적 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곧 본질의 열등이 아니라 직분·위임의 질서입니다(고전 15:24–28; 엡 1:20–22).

VII. 그리스도론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객관-주관 두 의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 신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계 1:5).
- 사역: 어린양으로 두루마리를 받아 심판과 구속을 집행(계 5장).
- 권위 근거: 아버지의 약속과 수여(시 2:8; 단 7:14) 때문에 반드시(δεῖ) 성취됩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곧”은 그리스도의 왕권 위임과 신랑-신부 언약의 완결을 향한 하늘의 시계입니다.

VIII. 신약의 인용과 구약의 비교

- 계 1:7 “구름들과 함께 오심” ← 단 7:13(사람의 아들), 속 12:10(그들이 찢은 그분을 바라봄) ↔ 마 24:30(사람의 아들의 표징), 막 13:26, 눅 21:27.
- 계 10장(작은 책)·22:10(인봉 금지) ↔ 단 12:4(인봉): 다니엘이 본 말세의 내용이 요한에게서 개봉 국면으로 전환.
- 계 22:6 “반드시 속히 될 일들” ↔ 계 1:1 동일표현: 책 머리-꼬리의 닷구 구조로, 1:1의 범위를 책 전체로 확장.

IX. 모형 vs. 실체

- 출애굽 재앙 → 나팔·대접 심판(이집트 심판의 보편화)
- 고엘(기업무를 자) → 어린양의 두루마리 개봉(룻기-레 25장 법의 실체)
- 성전·제사 → 어린양과 새 예루살렘(겔 40–48장의 그림자 성취)
- 왕권 언약(다윗언약) →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시 2; 사 11; 계 19–20)

X. 구속사적 위치

십자가-부활-승천 이후, 왕권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2-3장)를 지나 큰 환난(7년기, 단 9:27과 연계)과 재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종 드라마의 개막 선언이 곧 계 1:1입니다.

XI. 성경 간 연결 체계

- 구약: 단 2:28-30; 7:13-14; 9:27 / 사 13; 24; 34 / 욥 2-3 / 욥 12-14
 - 복음서: 마 24-25; 막 13; 눅 21
 - 서신서: 살전 4:16-5:3; 살후 2장; 히 10:37; 약 5:8-9; 벧후 3:9-13
 - 계시록 내부: 1:1↔22:6; 1:7↔19:11-16; 5장↔20장
-

XII. 참고 구절 (예표 → 성취 → 적용)

1. 단 7:13-14 (사람의 아들과 영원한 나라) →
 2. 욥 12:10 (그들이 찢은 자를 봄) →
 3. 마 24:30 (사람의 아들의 오심) →
 4. 계 1:7; 22:6-7 (반드시 속히, 내가 속히 오리라) →
 5. 살후 2:3-8 (불법의 사람) →
 6. 계 5:1-10 (어린양이 책을 받다) →
 7. 계 19:11-16; 20:4-6 (재림과 왕국)
-

XIII. 믿음의 예

서머나 교회(계 2:8-10)의 역사적 연장선에서, 폴리갑(Polycarp, A.D. 155경)의 순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의 생생한 실례입니다. 총독의 배교 강요 앞에서 그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해를 행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구주를 모독하랴”라고 고백하고 화형을 택했습니다(『The Martyrdom of Polycarp』, chs. 9-14; J.B. Lightfoot ed.). 임박한 주님의 날을 소망한 서머나의 증인은, 계시록의 첫 장에서 울려 퍼진 필연과 임박의 부름을 생애로 증거했습니다.

XIV. 결론

- 무엇인가?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예언으로, 어린양이 받으신 왕권과 두루마리 개봉을 통해 필연적으로 진행될 임박한 사건들의 총칭입니다(계 1:1 ↔ 22:6).

- 왜 ‘주셨다’인가? 성자의 본성 중 하나이신 전지(全知)를 훼손함이 아니라, 경륜적 위임 질서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에게서 종들에게 전달하시는 왕적 공표입니다(요 5:20; 계 5장).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미–아직(**already but not yet**)의 긴장을 품고, 임박함 속에 신속히 전개될 주의 날을 바라보며, 신부의 준비(거룩·인내·증거)로 응답해야 합니다(계 22:17, 20).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